

들녘이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녹색 옷을 갈아입은 산은 생채기 하나 없이 울창하고 가지치기를 시작한 모들은 바람결에 잎새를 휘날리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짧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갑자 썩도 땅속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에 시들어 가는 앞에서도 수확의 즐거움이 묻어난다.

세월이 흘러도 땅은 변함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토록 욕심이 가득할까? 매스컴에 보도되는 일련의 금융 부정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안 먹고 안 쓰며 근근이 모은 돈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고 은행에 저축했는데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는가?

요즘에 와서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던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 부쩍 실감이 난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안하고 근동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부지런하셨던 아버지, 땅을 사랑하고, 땅의 소리를 듣고, 땅과 호흡하며 사셨던 분!

오 척 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로 자수성가하여 만평이 가까운 농토를 경작 하셨다. 일손을 잘 구하지 못해 어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하시며 새벽어둠이 걷히기 전 일어나셔서, 사물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어야 일을 끝내곤 하셨으니 아버지의 생은

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

평생 일과 함께 한 삶이었다.

모내기과 김매기가 끝나도 쉬지 않고 아침 일찍 깊은 산에 가서서 거름할 풀을 베어 저녁녘이면 우차에 높달랴게 풀을 싣고 돌아오시곤 하셨다. 그 풀을 작두에 베어 물을 뿌려 거름을 만드셨다.

이 작업은 한 달 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여름 끝자락이 되면 집 모퉁이엔 커다란 풀 동산이 생겼고, 풀은 가을과 겨울을 지내며 발효되어 질 좋은 거름을 변해 갔다. 나는 고단해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 하세요! 비료를 사다 쓰시면 될 텐데…….”

내 말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땅은 정직하단다. 노력한 만큼 수확을 주지.

이 퇴비는 땅에 힘을 주고, 땅의 병도 고쳐 주는 약이란다” 하고 말씀하셨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퇴비를 넣어 농사지은 논의 곡식들은 윤기가 났고, 풍작을 이루어 가을이 되면 아버지의 얼굴엔 수확의 기쁨이 늘 가득했었다.

금년 초, 오래 된 한국영화특선 방영 프로그램에서 '맹진사댁 경사'라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인간의 진심을 다룬 영화의 주제와 코믹한 내용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당시 산의 모습이었다.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방학숙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풀 씨앗 모으기', '퇴비 베어오기' 이었다. 저학년은 마른 풀씨 1~2홉, 고학년은 3~4홉, 퇴비도 학년별로 킬로그램을 늘여 가져오게 하였고, 마을 어른들은 사방공사를 하여 그 풀씨를 산사태 난 곳에 뿌렸었다. 정부의 계획적인 조림정책의 결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황량한 민둥산을 몇 십 년 만에 이토록 푸르고 울창한 산하로 바꾸어 놓은 것은 그 당시 어른들의 노고이다.

명심보감에 “참외 밭에서는 짚신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잣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의심 받을 행동조차도 하지 말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오늘 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부지런함과 정직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직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다. 행여나 잃어버린 정직성이 있다면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겸허한 유월을 보내야 할 것이다. 6.25 전쟁의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참아가며 나라를 부강시킨 분들과 먼 훗날 이 땅을 가꾸며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2명의 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의 책임

문) 저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에 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을에게 불입하였고 갑과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는 일도 없었지만, 을이 그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잠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은 어쨌든 공동계주이므로 저와 다른 을의 계원들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계(契)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

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동계주가 관리하는 계에 있어서는 그 계주들이 공동으로 계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이지만,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갑과 을이 공동계주로서 각각 계원을 모집하여 만든 계의 계원들 중 갑

이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갑의 예금구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고 갑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을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을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갯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모인 계원들은 갑이 모집한 계원들과 을이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계원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갑과 을이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있어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갑과 을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계의 운영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귀하는 갑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 카운셀러 모집

여성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모레 카운셀러는
사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Counseling AMORE No.1 counselor



카운셀러 상담원 박옥순

- 소득** 월평균 1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지부장으로 승진시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능
- 판매** 고기능성 상품 취급, 판매기법 과학화, 다양한 판촉지원
- 교육** 고객에게 신뢰받는 미용전문가로 육성
- 승급**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팀장, 부장, 지부장, 수석지부장으로 승급
- 복지**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

017-767-1226
아모레 설악점